항공여행 모든것 알려드려요

아시아나 등 세계항공동맹체 통합정보제공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이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는 항공여객을 위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회원사가 공동 운영하는 새로운 웹사이트(www.staralliance.com)를 구축,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초로 시연된 이 사이트는 전 세계 항공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7개국(한국어·영어·일어·독어·불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에어차이나와 터키항공 등의 가입에 따라 지원언어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현 18개 회원 항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여행상품 및 항공기 운항스케줄, 실시간 운항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정에 따른 마일리지 계산기, 위탁수하물 조회 서비스, 각 국가별 비자 및 검역 등 출입국 정보와 여행지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훈훈한 세정'

아름다운 가게에 생활용품 1,400여점 기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지난 15일 아름다운 가게 광주2호(쌍촌점) 개점 2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광주청 직원들이 수집한 생활용품 등 1천400여점을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권춘기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아름다운 가게가 '아름다운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지속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04년 12월 3천여점, 2006년 10월 1천800여점의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젊은잎새 봉사단' 이웃사랑

독거노인에 매실음료 ·쌀 등 전달

보해양조'젊은 잎새 사랑 나누미 봉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16일 광주 '사랑의 식당'을 찾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활동을 펼치며, '사랑의 쌀' 400㎏과 '매실바람' 630캔을 전달했다. 또 이들은 광주 '행복 재활원'을 찾아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말벗 되어주기 ▲식사 먹여주기 ▲휠체어 밀어주기 ▲재활운동 시켜주기 ▲시설 청소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과자선물세트 30박스와 음료수(1.8ℓ) 40개, 세제와 화장지 등 다양한 위문품을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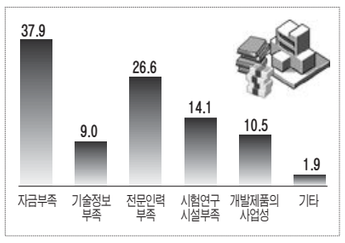
보해 관계자는 "올해 광주·목포·순천지역에 그쳤던 봉사활동을 내년에는 전주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범위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벤처기업 애로사항 들어보니

돈없어 신기술 상용화 못한다

10개업체중 4개업체꼴 자금부족 하소연
전문인력 양성 등 벤처특별법 제정 시급

■응답업체 기술개발시 애로사항 〈단위:%〉



게르마늄 비료를 생산하는 광주 G벤처는 최근 생분해성 제초제 개발에 성공해놓고도 상용화를 위한 생산설비 부족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나주 U벤처도 양계장 악취를 없애주는 신제품 사료와 기능성 달걀 등을 개발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연구를 중단하고 말았다.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나 시장수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부대 기업경영전략연구소(소장 조헌치)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소재 12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 및 기술애로요인' 결과에서도 이 같은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7.9%가 자금부족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6.6%), 시험연구시설의 부족(14.1%) 등을 들었다.

또 이들은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불확실성(42.2%)이 지속되고 고유가(19.5), 세계 경기둔화(18.0%)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수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경기도 침체국면이 지속(46.1%)되거나 더욱 악화(28.1%)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영업 및 판매기반 미흡(27.7%), 지역의 연구개발기반 미흡(19.5%), 각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전략에 따른 각종 혜택(14.1%)을 받는다는 이유로 광주·전남지역(28.1%)보다 서울 및 수도권(35.2%)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한편 광주·전남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묻는 질문에 세계 최고 수준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응답한 업체가 63.3%에 달해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을 보면 1개사당 국내특허권 보유수는 1.9개, 해외특허권도 0.1건에 달했다.

또 이들 벤처의 매출구조는 기업간 거래(24.7%), 일반 소비자 매출(20.9%), 대기업 납품(20.4%)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출도 11.2%에 달해 품질·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응답업체 대부분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불필요한 규제정리 ▲전문인력 양성지원 ▲지역벤처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구촌 생활용품 다 모였네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기하학적 문양의 유럽산 생활용기를 구경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제 생활용품전인 '메종 드 신세계' 행사를 마련, 유럽에서 직수입한 주방용품과 침구, 가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제공〉

CEO 대선후보 선호 성장 〉 안정 〉 통합 순

경총 346명 조사

전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 대선에서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43.9%가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성장지향형 지도자'를 꼽았다.

또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지향형'(23.9%),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20.1%)이 뒤를 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의 매출상위 주요 기업 CEO 346명을 대상으로 '내년 경제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CEO 10명 중 8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기준)을 3~4%대로 전망했다.

이는 5% 안팎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전망치로, 작년 이맘때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해서도 3%미만이 가장 크게 늘어난(2.8%→15.7%) 반면 5% 이상은 대폭 줄어든(18.6%→6.4%) 것이다.

현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침체국면에서 회복중'으로 평가한 응답은 15.7%에 그쳤으나 '극심한 침체국면'은 5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회복세 정체국면'(33.1%), '완연한 회복기'(0%)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노무현정부의 가장 성공한 정책은 '없다'(31.2%)→'사회복지 정책'(27.2%)→공공부문 정책(12.7%)→무역정책(12.7%) 등이 꼽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성탄 선물

대상은 가족·애인 순
5만~10만원대 주종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의 대상은 가족, 가격은 5~10만원대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고객과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선물을 하겠다고 답했다.

선물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9%의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애인(28%), 친구(12%) 순이었다.

선물 가격대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에게는 5~10만원대가 전체 응답자의 36%를 차지했고, 친구나 애인은 3~5만원대가 30%를 차지했다.

가장 받고싶은 선물로는 응답자의 63%가 현금과 상품권을 꼽았고 다음으로 의류(20%)와 패션잡화(10%)순이라고 답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케트전기 재무구조 개선

8對 1 감자

광주에 본사를 둔 로케트전기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감자를 실시키로 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로케트전기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8주를 1주로 합치는 내용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591만9천170주에서 73만9896주로, 자본금은 338억원에서 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달 들어서만 세신과 조비 등이 감자를 결정했으며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HK상호저축은행 마틴미디어 등 4개 기업이 감자에 나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